

과반? ... 헛물컨 민주 원내 1당도 위험

■ 여론조사 지지율 급락 '총선 비상'

'무감동 공천' 민심 싸늘 ... 통합 효과 다 까먹어

호남도 부글부글 ... 야권연대 해도 효과 미지수

민주통합당의 4·11 총선 가도에 비상이 걸렸다.

진통 끝에 통합 정당이 출범한 이후, 지지율이 새누리당을 역전하면서 오는 4월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라는 장밋빛 전망까지 제기됐다.

하지만 최근 지지율이 급전직하 하면서 제1당 진입마저 장담할 수 없는 처지가 된 상황이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민주통합당의 지지율은 새누리당에 재역전 당하는 등 바닥 민심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서치뷰와 KSOI가 최근 실시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 새누리당이 민주통합당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은 공천 과정의 시행착오와 전략 부재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민주통합당 전·현직 의원들이 대거 공천을 받는데다 친노·486 등 당내 주류세력이 공천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가 나오면서 '감동공천'에 실패, 통합의 효과를 다 무산시켰다는 것이다.

당내 곳곳에서는 무원칙한 공천 심

사로 총선 구도가 어그러졌다는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민주통합당의 공천 과정을 지켜본 호남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호남민의 물갈이에 대해 심정은 장밋빛 전망까지 제기됐다.

더욱이 민주당이 공천혁명을 위해 도입한 '모바일 경선'은 선거인단 모집 과정에서 불합 논란이 불거지고 투신사망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오히려 민심의 이반을 부르고 있다는 평가다.

한명숙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의 정책적 혼선도 마이너스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당장,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폐기 주장으로 발전하면서 '말바꾸기' 논란에 휩싸였다.

박지원 최고위원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옛것까지 한미FTA 폐기 또는 여러 의견을 그렇게 내세우다 3월15일 발표를 앞두고 민주당이 침묵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 각종 채신작업에 나서면서 보수층 결집에 성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달 중반까지만 해도 총선 승부처 지역 중 민주당의 우세로 나타났던 지역이 속속 열세로 바뀌거나 경합지역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평가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민주당 통합당의 공천은 원칙도, 전략도 없는 당내 주류세력을 위한 '그들만의 공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러한 민주당의 모습은 원내 제1당 및 정권 창출의 구호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때 따라, 민주당통합당에서는 야권

연대 카드로 위기를 극복한다는 모습이지만 성공 여부는 미지수다. 당장 야권연대 지역구를 둘러싸고 당내에서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민주당 통합당의 공천은 원칙도, 전략도 없는 당내 주류세력을 위한 '그들만의 공천'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러한 민주당의 모습은 원내 제1당 및 정권 창출의 구호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야권연대 지역 후보 '결과 승복' 각서

민주 4곳 심사결과 발표

민주통합당은 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4·11총선과 관련, 야권연대 대상지역인 서울 관악을은 경선지역으로 분류하는 등 4곳에 대한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 경기 파주갑, 강원 원주갑, 태백·영월·평창·정선 등에서도 경선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 관악을에서는 김희철 의원과 정태호 전 청와대 대변인 간 경선을 통해 후보를 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당 공천심사위원회 간사인 백원우 의원은 "야권연대 대상 지

역이지만 후보를 압축해 달라는 지도부의 요청을 받았다"며 "야권연대 대상 지역 후보들에게는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최고위원은 또 ▲경기 파주갑은 윤후덕 전 청와대 정부비서관과 정진 전 국회 정책연구위원 ▲강원도 원주갑은 박우순 의원과 김진희 전 강원도의회 의원, 심기준 전 강원도 정무특보 ▲태백·영월·평창·정선은 최종원 의원과 권영만 전 EBS 사장, 김원창 전 정선군수 간의 경선지역으로 각각 정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도부 균열... 어수선한 민주

문성근·이용득 당무 거부 ... 박지원 공천 불만 표출

민주통합당의 4·11 총선 공천에 대한 비판이 당 지도부 간 균열로 이어지고 있다.

문성근·이용득 최고위원은 공천에 불만을 표출한 뒤 7일 최고위원회의에도 불참하며 당무를 거부했으며 이인영 최고위원은 이날도 공천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때문에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는 가라앉은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한명숙 대표는 야권연대와 제주 감정마을 사태에 대해서 발언하고 공천 후유증에 대한 언급을 삼가며 분위기를 살렸으나 박원선 최고위원은 "공천 후유증으로 여의도가 시끄럽다. 공천은 늘 그랬다고, 늘 시끄럽다고 댁기에는 이번에는 상황이 달라

보인다"며 "공천기준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박지원 최고위원도 "우리는 개혁공천이라고 자랑을 하지만 국민과 언론은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싸늘하다"며 "기왕에 총선거희단에서 감동을 주는 총선전략을 짜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우리당의 공천실상을 보고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가세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의 공천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국민 앞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모든 게 좋은 것이 좋다고 넘어가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디지털콘텐츠 요람' 광주CGI센터 개관



7일 광주 남구 송하동 '광주CGI센터' 개관식에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참석자들이 3D전용안경을 쓴 채 3D영상 시연을 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전국 최고 3D 제작시설 갖춰 '제2의 잡스' 배출 머지않았다

문화중심도시 광주에 디지털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광주CGI센터'가 개관식을 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시는 7일 송하동 광주CGI센터에서 강운태 시장과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비롯해 CT 연구원 설립준비위원, 문화산업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CGI센터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관식은 3D영상콘텐츠 전문제작 지원시설답게 축하공연과 축사 등을 비롯한 행사의 모든 과정이 행사장 곳곳에 설치된 스크린에 3D영상으로 시연 돼 눈길을 끌었다.

전국 최고의 3D 제작시설을 갖추고, '제2의 스티브잡스'를 꿈꾸는 많은 기업이 입주해 있는 광주CGI센터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CGI센터는=Computer Generated Imagery의 약자로 각종 영상을 컴퓨터로 처리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시설이다. 광주CGI센터는 각종 영상 가운데서도 평면인 2D(Dimension)영상을 3D 입체영상으로 전환하기 위한 전문제작·지원시설로, 3D전용카

메라 등 100억원대의 최첨단 장비가 갖춰져 있다.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센터 내에는 실제 촬영이 어려운 다양한 배경화면 연출이 가능한 초대형 종합촬영스튜디오와 함께, 이미 촬영한 영상의 색상과 휘도·명암 등을 편집하기 위한 디지털 색보정실이 들어서 있다.

또 여러 대의 컴퓨터를 한 대의 컴퓨터처럼 사용함으로써 3D영상 제작을 용이하게 하는 랜더팜실, 영화에 대사와 음악을 입히는 음향제작실을 비롯해 영상편집실과 영상사실도 설치되어 있다. 특히 종합촬영스튜디오는 3D 제작 스튜디오로서는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아이맥스(IMAX)용 영화까지 제작이 가능하다. 센터에서는 또, 3D영상제작 전문인력 양성 사업과 함께 해외 유망 프로젝트 유치에 위한 마케팅 기능 등도 수행하게 된다.

◇입주기업=CGI센터 2층과 4~10층은 문화콘텐츠 관련 업체들의 입주공간으로 제공되며, 앞으로 문화기업 입주가 완료되면 입주인원이 모두 5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광주모

팩스튜디오, (주)키노모티브, (주)네온크리에이션, (주)갭코 등이 입주해 있으며, 특히 한미합작법인인 (주)갭코는 100여명의 지역인력을 고용해 오는 4월부터 할리우드 영상콘텐츠를 3D로 변환하는 컨버팅 작업에 들어간다. 또 다른 입주업체인 (주)디지털아이디어3D는 국내 영화 특수효과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오는 15일 개봉을 앞둔 영화 '가비'의 3D 작업에도 참여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각종 영상 및 문화 관련업체들이 광주CGI센터를 중심으로 모여들면, 낙후한 송전산단이 최첨단 디지털 콘텐츠 전문산단으로 탈바꿈하는 것은 물론 광주 문화산업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광주가 문화중심도시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광주CGI센터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광주CGI센터 개관을 계기로, 송암산단을 문화디지털산단으로 업그레이드하는데 이어 광주를 3D산업의 메카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형기기자 redplane@

빛의만평 - 김중두

어쩌다가 이 모양이...

민간생활 증거인멸

기소 청탁

돈봉투 처럼 깔끔(?)하게 못하고 말야

어린이집은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을 추구합니다.

보육의 선진도시 광주광역시어린이집입니다!

- 어린이집 평가인증률 98.9%(전국 1위)**
광주광역시 모든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에 참여하여,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육을 제공합니다.
-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100%가입**
만약의 사고에 치료 및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료를 광주광역시에서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0세 ~ 2세 무상보육 실시**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만 0세 ~ 2세 아동의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 만5세아 누리교육과정 운영**
초등학교 창의, 인성교육과 연계한 누리과정을 운영하여 국가가 책임 보육 합니다.
- 다양한 특수보육 운영**
장애아, 영아, 다문화, 방과후, 시간연장(야간, 24시간, 휴일) 보육으로 학부모의 사회활동을 돕습니다.

보육시설평가인증이란?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영유아에게 안전한 보호와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 평가인증지표를 기준으로 어린이집의 현재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한 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준에 대하여 국가가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보육교사는 관련학위를 전공하고 실습을 거쳐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 후 매 2년마다 40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있습니다.